

# “장사도 꿈도 접어요”... ‘노란우산 폐업 공제’ 사상 최고

## 벼랑끝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금액 8240억원 위탁보증 대위변제도 1년 전 대비 2배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춥다.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실제 이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온다. 깊어지는 시름은 각종 지표로 쉽게 확인된다.

14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9.98%로 2022년 2.79%보다 7.1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실금액은 824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195억원보다 275.40%(6045억원)나 증가했다.

부실률은 연도말 대출잔액에 부실금액을 나눈 것으로, 소진공은 연체관련 통계를 부실률로 관리 중이다. 최근 7년(2017~2023년) 간 부실률이 4%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부실금액은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회상 및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한 돈이다.

15일 이상 연체하거나 회상·파산, 공적 채무조정 등 기한이익상실 기업을 뜻하는 부실정후기업도 2021년 1만2108곳에서 2022년 3만7355곳으로 늘어났더니 지난해 8만4726곳으로 크게 뛰었다.

신용보증기금에 의하면 지난 2월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대위변제는 282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25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대위변제 발생액은 189억7000만원에서 375억원으로 점프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을 통한 폐업 사유 공제금 건수는 지난해 11만1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 역시 자연스레 늘어나면서 1조2600억원으로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일 발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60%가 휴업 및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는 각종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기동량(BS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9.9를 기록하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지난 1월 48.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한 차례도 5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BSI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 시 경기 실적 호전을, 100 미만 악화를 의미한다. 해당 지수는 2월 50.0, 3월 64.5 등으로 간신히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회복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춥다는 반응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사정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A씨는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날로 늘어나는

대출금에 사업까지 휘청거리면서 이대로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중이다.

코로나 전부터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해 온 B씨는 “코로나 이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엔데믹 이후에도 회사들이 저녁 회식을 거의 안 한다”면서 “예전의 상권이 아닌데 임대료는 그대로이거나 오른 곳이 많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황, 온누리상품권 확대 공급 등 여러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수포 공약’에 속았이를 해왔던 소상공인들이지만, 한 번 더 속아본다는 심정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빚 내서 빚 갚아요” 이마저 한계상황...대책마련 절실

### 갚을 여력 되지 않자 신규대출 ‘돌려막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액 27조3833억원 “대환대출 확대 적용해 이자부담 덜어야”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원리금을 갚으며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출 이자 경감 등 마땅한 대책이 없을 경우,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잇따른 금리 상승으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5만8499명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1109조66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851명,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도 18조2941억원에서 27조

3833억원으로 9조892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자,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로 버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서는 ‘추가 대출을 문의하는 글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배달전문점을 운영한다는 이모씨는 “현재까지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지만, 장사를 이어가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더이상 대출 나올 곳이 없다고 하더라”며 “폐업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이 늘어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부터 빚을 많이 저왔는데, 내수 경기도 부진하지 않냐”며 “금리상승에 부채까지 누적되다 보니 쌓였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해 지급 건수만 11만15건이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파산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신용도가 하락하고 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기 이전에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대환대출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줌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중기부는 앞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받아 8000억원 규모를 접수했다. 이달부터 2차 접수도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대환대출을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된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